

발행인: 문선배 | 편집인: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주)한우리SJM

2023년 (불기 2567년) 11월 1일 (수)

http://dongguk.or.kr

제265호

미래 동창회와 소통 … 재학생 후원

11월 3일 열릴 '제1회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 홍보



▲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이사장 돈관스님, 윤재웅 총장, 총학생회 문상준 비대위원장과 함께 미래 동창회 주역으로 등장할 재학생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격려했다. (우측부터)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10월11일 서울캠퍼스에서 열 린 가을축제 '야단법석'현장을 방문해 재학생과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회장은 가을축제 프로그램의 하나인 동국 복면가 요제 오프닝 무대에 올라 "축제기간 내내 즐거운 시간 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격려금을 전달하고 "11월 3 일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자"고 총동창회 후원 행사를 홍보했다. 문 회장은 지난 6월8일 재학생과 동문이 참여해 동 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애교심을 함양하는 한마음 행사 를 후원하는 기부금 1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총동창회 후원으로 열리는 제1회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은 11월3일 오후1시 재학생과 동문이 남산 둘레길을 함께 걷고 만해광장에서 백상 응원전과 치맥파티를 하면서 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총동창회장 초청 특강

WISE캠퍼스 재학생과 소통



▲ 문선배 회장은 '청년들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WISE캠퍼스는 9월12일 문선배 총동창회장을 초청 해 청년 미래 설계를 위한 멘토링 차원에서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특강 자리를 마련했다.

백주년기념관 D501 강의실에서 열린 특강에는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 회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IT기술의 발전과 AI 등 신 기술의 등장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에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인 선택과 도전정신을 강조 했다.

기업가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에 직결되는 핵심가치가 기후변화 등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재무적인 정량지표에서 비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더 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해 변화를 두려워 말고 당당히 도전해야 한다"고 참석 학생들을 격려했다.

2023년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후보자 추천

총동창회는 2023년 한해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에서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 **후보 자격** : 전 동국인 (교직원 등 포함)

• 추천 방법 : 상임위원 추천, 각급 지부 / 지회 회장 추천

동창회원 5인 이상 공동 추천

• 추천 분야 :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술, 봉사부문 등)

•제출 서류 : 추천서, 후보자 이력서(사진 첨부), 공적서

• 추천 마감 : 2023년 11월 14일 (화) 18:00까지

2023 동국인의 밤 행사

• 일 시: 2023년 12월 7일 (목) 18시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내 용:

① 의식행사 / 영상메세지

②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

③ 만찬 및 문화공연

• 참 가 비 : 10만원

• **입금계좌**: 하나은행 231-890041-26804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바랍니다.

접 수 및 문 의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Tel. 02-733-0303 | Fax. 02-733-0306 | E-mail. dongguka@naver.com ADD. (우)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존중과 배려, 하나로 결집한 동국인

제9회 동국가족 친선 골프대회



총동창회는 8월31일 양평TPC GC에 서 제9회 동국가족 친선 골프대회를 개 최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대회사에 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동국인이 하 나로 결집하는 자리로 승화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부산동창회, 대구동창회, 경주동창회 를 비롯해 대학원, 학과, 학번 동창회 등 총 30팀(120명)이 참가한 대회는 3개 코 스에서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상자는 △우승=황경환(교대원87) △준우승=이종경(경영82) △3위=이선 구(경행79) △메달리스트=장병헌(체교 86) △롱기스트(남)=이건열(경행82) △ 롱기스트(여)=윤미정(수교81) △니어리 스트=윤병관(화공82) △다버디=최혁지 (법학73) △다파=박성준(체교96) △다보 기=김환배(연료공학69) △행운상=전은 영(화학70) 등이 차지했다.

작년에 이어 최고령으로 참석한 전순 표(농학53) 세스코 총회장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다'회고록을 참석한 동문 들에게 일일이 서명해 선사했다.

전진선(경행79) 양평군수는 양평 소재

골프장을 찾아온 동문들을 환영하며 양

평에서 재배한 쌀을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문선배 총동창회 장은 지난 7월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에서 7년만에 우승을 차지한 모교 야구 부 이건열 감독과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단합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은영 동문은 골프대회 참석 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에 감사했다"며 동국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제7회 직할경주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직할경주동창회(회장 조덕형)는 7월10 일 경주신라CC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해 영남지역 동문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유 대를 강화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동국장학회 장학 금 2천5백만원을 이영경 WISE캠퍼스 총장에게 전달하고 "골프대회를 통해 동 문들의 우의증진 뿐 아니라 지역 발전과 모교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원 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대물림 선순환 장학금 조성 위한 소통

WISE캠퍼스 장학금 수여식



동국장학회(이사장 홍파스님)는 9월12 일 백주년기념관에서 WISE캠퍼스 재학 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소통 공 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21일 '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을 통해 서울캠퍼스 37명에게 장학금 을 수여하고 기부 가치를 공유한 동국장 학회는 대물림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 는 장학금 수여식을 이어갔다.

동국장학회 이사이기도 한 문선배 총 동창회장은 이사장 홍파스님을 대신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동국의 경쟁력은 바 로 여러분들이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재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서 동 국으로 돌아와 모교사랑, 후배사랑을 대 물림하는 영원한 동국인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국장학회 신규이사 해운스님은 "WISE캠퍼스에서 꿈을 키운 여러분 선 배로서 축하하고 응원한다"며 격려했다.

한편, 동국장학회에는 동문들의 참여 가 이어져 진주 문수사 주지 영안스님(승 가74)은 6월과 9월 각각 1천만원씩 총 2

천만원을 기부하며 동국장학회에 큰 힘 을 보탰다.

카누부 종합준우승 격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장학금 수여식 후 카누부를 격려했다.

카누부는 제19회 백마강배 전국카누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었고 제40 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는 전 선수가 고른 활약을 펼쳐 남자 대학부 종합준우 승을 차지했다.

WISE캠퍼스 카누부는 2002년 창단 후 국가대표를 다수 배출하고 국제대회 입상 실적으로 모교를 빛내고 있다.

총동창회 소통 플랫폼 구축 협약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8월24일 '나비 서'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현대 ICT(대표 김세규)와 총동창회 소통 플랫 폼 구축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존 '나비서' 앱에 총동창회 콘텐츠 를 추가해 동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나비서' 앱을 다운받아 총동창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에서 개인 정보를 등록한 동문만이 가능하다.

총동창회는 모바일 세대에 적합한 소 통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참여하는 동 창회' 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총동창회 소통 플랫폼은 10월달 오픈해 동문들에게 가입 홍보를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열고 상벌위원회 구성



총동창회는 10월17일 본회 회의실에 서 제30대 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업무로 12월7일 롯데호텔에서 예 정된 '동국인의 밤' 행사와 11월3일 '제 1회 동국인 한마음 페스티벌'에 대한 계 획을 공유하고 상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현안업무로는 재정수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벌위원 6명 위촉

회칙 제7장(상벌) 제31조(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는 이 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하고 수 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수석 부회장 유고 시에는 호선하여 정한다』에

따라 수석부회 장은 추후 임 명을 고려해 공석을 유지하 고 위원 6명을 위촉했다.

△공영대(화 학77) △윤미 정(수교81) △ 김종필(행정

82) △조완제(건축85) △최유행(한의88) △서동범(법학95)

재정수입 확대방안 논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비에 의존하는 재 정구조 상 관행적인 수입으로는 총동창 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자 재정수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5년간 회비납부 현황을 분석한 자 료를 토대로 매년 감소하는 납부율을 개 선하기 위해 임원과 일반회원, 졸업생 입 회비로 나눠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 해 의견을 교환했다.



PLAY 스토어/앱스토어 나비서를 검색하여 설치





1. 나비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가입한다.

- 2. [협회/단체]에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를 선택 하고 가입한다.
- 3. [협회/단체] 가입은 총동창회 DB에 동문정보 (휴대폰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협회/단체] 가입이 안되는 경우, 총동창회 사무처(02-733-0303)로 연락해 동문정보를 등록 또는 수정하기 바랍니다.

만해 탄신 144주년, 만해평화문학축전 미당연구소 설치 익명 기부자 7억원 쾌척

우천으로 종로구 낙산 묘각사에서 열려



제8회 심우장 만해평화문학축전이 8 월29일 우천관계로 종로구 낙산 묘각사 로 자리를 옮겨 개최됐다. 당초 행사는 성북구 심우장에서 열릴 예정이였다.

만해선사 탄신 144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는 1부 만해선사 탄신 다례재 및 기 념식, 2부 심우장 및 만해 학술세미나, 3 부 만해문학의 향연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만해사상실천연합은 2015년 故선진규(불교55) 법사의 발의로 창립된 이래 2022년 4월 대한불교관음 종 종정 홍파스님(불교63)을 이사장으로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해 만해사상의 사회 적 실천을 주요 활동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만 해 선사께서는 총동창회의 효시가 된 일 심회를 창립하신 초대회장으로 우리와는 너무나 각별한 대선배님이시기도 하다" 며 "만해 탄신일에 평화문학축전을 여는 것은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와 같은 마음이 아 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해사상실천연합은 9월12일에 는 만해의 길 순례행사로 홍성 생가지를 방문하는 등 다채롭게 행사를 진행했다.

탈북학생 후원 장학금 기탁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탈북학생 후원에 앞장 서고 있는 법타스님(인도철학67)으 로부터 모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 인 이지훈 탈북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듣고 9월19일 임선기 사무총장을 통 해 모교 대외협력처에 이지훈 학생을 후

원하는 지정장 학금을 기탁했 다.

이지훈 학생 은 지난 6월초 건강검진에서 간암3기 판정 을 받고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아르

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

금번 후원에는 송석환 제25대 총동창 회장, 돈관 이사장 등이 참여했으며 불교 방송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도 성금이 답지했다.

여자총동창회 장학금 2천만원 기부



여자총동창회(회장 윤미정)가 9월21일 모교를 찾아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 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6명 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여자총동창회는 지난 2014년부터 10 년째 동국대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모금해 전달해오고 있다.

윤미정 회장은 "여자 총동창회가 앞서 나가며 학교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겠다 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이런 희망과 열 정은 학교와 학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당 업적 체계적으로 연구 후학들에게 알리길"

익명의 기부자가 "미당 서정주 연구에 써달라"며 모교에 7억 원을 기부했다. 이 는 동국대 익명의 기부자 중 두 번째로 높 은 금액이다.

기부자는 철저히 익명을 유지하고 기 부 약정식 행사 등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 도 한사코 사양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학교 측에 따르면 기부자는 평소에 미 당 선생님을 존경해 왔으며, 동국대 신임 총장으로 미당 선생의 애제자이고 미당 연구의 대가인 윤재웅 총장이 임용됐다 는 기사를 언론에서 접하고 기부를 결심 했다고 한다.

기부자는 "미당 선생의 업적을 보다 체 계적으로 연구하여 후학들에게 미당 선 생의 생애, 미공개 작품 및 다양한 활동 등을 널리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향후 '미당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개 인적으로 은사 이신 미당 선생



님을 존경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 분의 업적을 연구하는데 써 달 라고 이렇게 큰 금액을 희사해 주신 숭고 한 뜻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며 "향후 가 칭 '미당연구소'를 설치해 기부자의 뜻 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36회 동국문학상, 박판식 시인 수상



만해축전위원회(위원장 공영대)와 동 국문학인회(회장 김금용)는 제36회 동국 문학상 수상자로 박판식(국문93) 시인을 선정했다.

동국문학인회는 10월13일 만해마을에 서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에게 상금 5백만원을 수여했다.

박판식 시인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2001년 〈동서문학〉으로 등단했고, 시집 『밤의 피치카토』 『나는 나와 어울리지 않 는다』『나는 내 인생에 시원한 구멍을 내 고 싶다』 등을 발간했다. 2013년 김춘수 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36회 동국문학상 본심 심사위원장 김춘식(모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 수) 평론가는 "박판식 시인의 이번 시집 은 이전의 시에서 보여준 정밀한 언어 구 사력, 감정과 사유를 드러내는 긴밀한 구 성력, 탁월한 알레고리 등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이번 시집 『나는 내 인생에 시원 한 구멍을 내고 싶다』는 시인으로서의 삶 과 일상인으로서의 삶의 간극이 시의 저 변에 깊은 갈등이나 고뇌로 감추어져 있 지만, 결국은 그 긴장을 삶에 대한 사유 와 자기 운명의 성찰로 끌어가고 변주해 냄으로써, 시작품 안에 압축된 서사성을 동시에 구현해 내는 탁월함이 돋보인다" 고 평했다.

동국문학상은 1987년에 신경림 시인 을 1회 수상자로 배출한 이후, 조정래, 홍 신선, 문효치, 문정희, 이상문, 이윤학, 공 광규 등 한국 문단을 주도하는 문학인들

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2022년 제35회 동국문학상에는 윤고 은(문창99) 소설가의 『도서관 런어웨이』 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자작나무 숲 시낭송회



동국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한 문인 20 여명은 다음날인 14일 원대리 자작나무 숲으로 문학기행을 떠나 시낭송회를 갖 는 등 감성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김금용 회장은 "도중에 비가 내려 촉촉 한 자작나무 숲의 기운이 포근히 감싸줘 문인들의 시흥이 절로 넘쳤다"며 "계획 에 없었던 인제군 박인환 문학관을 둘러 보고 인제 도서관에서 국악 퓨전공연도 관람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동국 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문학기행을 무사 히 마친 소회를 밝혔다.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임시총회 열어

회칙 전면 개정하고 새로운 도약 다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회장 홍종표)는 9월8일 모교 상록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회칙 개정의 건을 의결하고 미래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홍종표 총동문회장은 "변화하는 사회 와 기술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침과 원칙 을 마련해 총동문회 역할을 더욱 효과적 으로 수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회칙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미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동문들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회보를 발간 해 배부하면서 동문 네트워크를 확장하 고 소모임을 활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철학 총동문회 사무실 개소

동문회원 자격 대학원생으로 확대



인도철학총동문회(회장 선일 스님)는 8월8일 충무로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2021년 12월 동문회를 결성하고 회보 발간과 동문 결속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동문회에서 총동문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문회원 자격을 대학 원생으로 확대했다. 총동문회 사무실은 향후 회원 친목과 소통의 공간인 동시에 학술 및 연구 지 원, 문헌·사료 발굴, 동문들의 저서 발 굴 및 출판 지원, 인도철학의 대중화와 현대적 활동을 위한 문화·교양 사업 등 을 펼쳐나가는 중심이 될 전망이다.

ROTC 한마음한마당 체육대회



ROTC총동문회(회장 차승환)는 9월9일 제14회 한마음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모교 대운동장에서 62기, 63기 재학생과 함께 축구, 족구, 윷놀이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충무로 인근에서 당구대회를 열어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친목을 다졌다.

차승환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ROTC 후보생 지원율이 급감해 창설이 후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112ROTC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재학생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울트라장학금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나가 자"고 강조했다.

식품생명공학과 동문 체육대회



식품생명공학과 총동문회(회장 이범 주)는 10월7일 모교 만해광장에서 동문 체육대회를 열고 재학생과 동문이 단합 하는 시간을 가졌다.

61학번 신동화 동문을 비롯해 60학번 대, 70학번대 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재학 생 후배들을 격려하며 1961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식품생명공학과의 자부심을 보여줬다.

신동화 동문은 격려시를 통해 "식품생 명공학과에서 배출한 3,500여 명의 동문 들이 현재 식품산업 현장과 대학, 연구기 관, 정부기관에서 맹활약 하고 있다"며 "4차 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식품공학분 야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만큼 식품학 지 식을 기반으로 소비자 맞춤의 접근과 다 양한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공부를 해달라"는 조언을 했다.



1963년 전신인 삼신합성화학공업사로 출발하여 형광염료와 지력증강제, 싸이즈제 내수화제 등 제지 및 섬유용 화학제품을 생산, 공급하며 일본 및 중국 등에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민흥기 (법학과 1968) 설송장학재단 이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54 (남촌동) Tel. 032-812-7071~4 / Fax. 032-812-7075

가을학기 시작하며 열린 취업박람회

저학년은 진로탐색, 고학년은 정보취득



모교 2023 취업박람회가 9월11일 서 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개막했다.

이사장 돈관스님, 윤재웅 총장을 비롯 해 문선배 총동창회장, 최진식 중견기업 연합회 회장, 조성원 조이시티 대표이사 등 동문 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참여업체 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면 채용상담 △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명사 초청 특강 △온라인 동문 취업 · 직무 멘토링 △학 과별 멘토링데이 등 5가지 주요 프로그 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과별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를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 램을 신설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취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은 상담을 받기 위해 이력서와 기업 정보 자료들을 챙기며 부스를 둘러보는 진풍경이 벌어 졌다.

현장에는 △퍼스널 컬러진단 △자문적

성검사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헤 어 · 메이크업 컨설팅 등 구직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2023 WISE Dongguk 취업박람회

WISE캠퍼스는 10월11일~12일 양일 간에 걸쳐 WISE캠퍼스 문무관대로 야외 부스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채용상담 ZONE에서는 한국수력원자 력등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 현대아이에 이치엘등 대기업계열사, (주)다스등 우수 중견기업 및 반야트리 클럽앤 스파등 외 국계기업, 우수 중소기업 54개 기업이 참 가해 구직자들에게 알찬 채용정보를 제 공했으며, 그 중 제주신라호텔등 18개 기 업이 현장채용을 진행했다.

직무상담 ZONE에서는 HDC현대산업 개발등에 취업한 졸업생 선배 10여명이 후배들과 지역청년을 위한 직무상담을 진행했다.

"왜 동국인가? 왜 불교인가?"

제2회 야단법석 포럼, 윤재웅 총장 특강

7080동창회와 동공회가 마련한 제2회 야단법석 포럼이 8월24일 모교 중강당에 서 열려 윤재웅 총장이 '왜 동국대인가? 왜 불교인가?' 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윤 총장은 특강에 앞서 "동국의 정체성 을 우리가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질문 해보면 좋겠다"며 동국대의 역사를 설명 하고 교명이 해남 대흥사 동국선원(東國 禪院)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후 정각원 주련 '동국상방대광명(東國常放 大光明)'의 뜻을 부연했다.

윤 총장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한 류'를 이제는 학문적, 문화적, 산업적으 로 융합한 지식공동체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국대를 한류학의 총본산으로 성



장시켜 이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히며 구체적 방안으 로 한류학 연구소와 관련 대학원 설립을

만해정신 기릴 '만해동산' 개원



모교 만해시비가 있는 공간이 36년만 에 '만해동산' 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모교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1987년 건 립된 만해시비 주변을 정비해 10월10일 개 원식을 거행했 다. 새롭게 조 성된 만해동산 은 시멘트, 철 근 등 인공 재 료를 전혀 사 용하지 않은

친환경 공간으로, 만해시비의 의의를 구 현해 동국구성원을 위한 깨달음과 명상,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을 학위수여식 '행동하고 실천하라'



지 않고 무질 서 속 질서를 찾으면서 삶의 진정한 주인공 이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WISE캠퍼 스는 8월25일 100주년기념 관에서 2023

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289명, 석사 71명, 박사 15명 등 모두 375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서울캠과 WISE 캠 가을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 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며 "행동하고 실천하라. 실패를 두려워하 리 동국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 지말고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8월8일 제350 회 이사회(이사장 돈관 스님)를 열고 9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기유 이사를 재 선임하고, 9월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민 병덕 이사 후임에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 과 명예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24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학위수여 인원

은 학사 1135명, 석사 633명, 박사 112명

윤재웅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여러

분들은 앞으로 삶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무질서를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며 "우

으로 총 1880명이다.

또 9월26일에는 제351회 이사회를 열 고 임기가 만료되는 돈관스님과, 정충래 이사의 후임으로 돈관스님과 이상훈 한 국교수불자연합회장(대전대 교수)를 만 장일치로 선출했다.

WISE캠퍼스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미애 · 이승 덕·문일수), 직원 대표위원 3인(강동식 · 이용수 · 이상 목), 학부학생 대표위원 1명 (유정호) 등 총 20명으로 구성 됐다.

내년 2월 WISE캠퍼스 총장(부총장급) 임기만료를 앞두고 후임 총장 선출을 위 한 'WISE캠퍼스 총장후보자 추천위원 회(WISE총추위)' 를 구성하고 10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사회인사, 동 문, 교원, 직원, 학부학생 등 각 단위에서 추천된 대표자들을 총추위원으로 위촉하 고 위원장에 교육원장 범해 스님을 임명 했다.

WISE총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계 종 대표위원 4인(범해·성화·우봉·설 도 스님), 사회인사 대표위원 3인(김영 일·임명배·백승권), 동문 대표위원 1 명(조덕형). 교원 대표위원 8명(김영진 · 유주한 · 심재명 · 김성환 · 안영규 · 이

WISE 총추위(위원장 범해스님)는 10 월24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 대상 자와 소견발표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WISE 총추위는 규정에 따라 총장후보 대상자로 △구본철(영문81) 글로벌사회 경영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류완하 (불교미술83)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디자 인미술학과 교수 △박용기(한의83) 한의 과대학 한의학과 교수 △서운교(한의83)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수를 확정했다.

소견 발표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부터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4층 로터 스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 인 중계를 한다. 온라인 중계는 WISE캠 퍼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성취와 빌링도량



기도성취및선도대도장 한국(유튜브)불교대학 大관음사

유튜브 불교대학

- 자매 채널 비유디
- 영어 채널 K-Buddha(부처님세상)
- 중국어 채널 K-佛陀(부처님마음)



17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 ▶ 수행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 ▶ 경전공부 육조단경, 금강경 등
-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월 2,990원/교재 무료 제공)



💯 좋아요





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053)816-8228 포항도량 054)727-8228 영천도량 054)333-8228

감포도량 054)753-8228 칠곡도량 053)313-8228 서울도량 02) 963-8228 청도도량 054)373-8229 해 변 절 054)745-9229 구미도량 054)443-8228 팔공산도량 053)985-8229 지리산치유마을 055)973-8276

'제78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우승



▲ 선수들로부터 우승 헹가래를 받고 있는 이건열 감독.



▲ 1985년 춘계리그 우승 후 차도로 나와 행진하는 모습.



▲ 강석우 동문은 모교 야구부육성기금을 전달했다.

모교 야구부가 7월11일 홍천야구장에서 치러질 예정 이었던 결승전이 우천으로 취소돼 고려대와 공동 우승 을 차지했다.

전국대회 우승은 2016년 제71회 전국대학야구선수 권대회 이후 7년만이다.

제2의 전성기 맞은 야구부

모교 야구부는 공동우승이 아쉬울 정도로 이번 대회 내내 좋은 성적을 냈다. 예선전 10경기에서 6승1무3패 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본선에서는 지난해 우승 팀 경희대에 14-2 완승을 포함 5전 전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야구부 정원이 많으면 50~60명 되는 다 른 팀과 달리 22명을 데려갔다. 부상자를 제외하면 20 명도 채 안 되는 인원으로 일군 우승이라 더욱 값졌다.

1946년 창단한 모교 야구부는 김인식 前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끌던 1980년대 초반 이후 2013년 이건열 감 독이 부임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군산상고-동국대를 나온 이 감독은 프로에서는 1986 년부터 97년까지 12년간 해태(현 KIA)에서만 뛰며 '타 이거즈 왕조' 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이후 SK와이번스, LG 트윈스, KIA 타이거즈 등에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동국대 감독 부임 후에는 5년만인 2018년 통산 100 승을 달성했으며, 이번 대회까지 9번의 우승을 거머쥐 면서 학교의 명성을 드높였다.

추억의 동대문 야구장

모교 야구부는 창단후 37년만인 1983년 처음으로 대학야구 정상에 올랐다. 봄철 전국대학야구 결승리그 마지막경기서 6번 지명타자 이건열의 솔로 및 투런홈런을 비롯 홈런 4발을 포함한 장단 17안타로 건국대를 11대5로 꺾고 3전승으로 감격의 패권을 차지했다. 당시 동대문 야구장에 모교 야구부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관중석에는 재학생으로 가득했다.

1985년 춘계리그 우승 후에는 전교생이 차도로 나와 장충동을 거쳐 모교까지 행진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군사정권시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추억을 80학 번대 동문들은 카타르시스처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82학번으로 80년대 동국대 야구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건열 감독이 부임하자 82학번을 중심으로 후원회가 조직되어 모교 야구부를 후원하고 있다.

위기의 대학야구

프로야구와 함께 대학야구는 위기를 맞았다. 프로 구 단에서 고졸 선수를 뽑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둬 선수들 도 대학 진학보다는 프로에서 뛰려고 한다.

대학 선수들은 정규 수업을 병행하면서 일정 수준의 학점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선수 등 록을 할 수 없게 된다. 훈련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해가 는데, 서울 및 수도권 구장은 고교야구 등에 밀려 대학 선수들은 지방을 전전하며 경기를 치러야 한다. 점차 대학야구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고 구단 스카우트도 대학선수보다는 고졸 선수 관찰에 더욱 힘을 쓰고 있다.

7개의 전국 규모 토너먼트 대회가 있는 고교 무대와 달리 대학 야구는 전국체전을 제외하면 대학야구선수권 대회, 대통령기, KUSF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 등 3개 대회뿐이다.

대통령기에 나서지 않는 학교도 있어 왕중왕전에 진출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12경기(리그 11경기, 전국 대학야구선수권대회 1차전)만 치르고 한 해가 끝난다.

추억을 소환한 최강야구

대학야구에 대한 무관심은 우승을 해도 기사 한 줄이 없다.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으니 관심은 더욱 멀어져 간 다. 최근 JTBC 예능 '최강야구'에서 모교 야구부와의 경기가 9월11일과 18일 전파를 탔다.

모교 야구부는 19명의 가용선수만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대학야구 우승팀답게 1차전은 8대0으로 승리하고 2차전은 11대7로 패배하면서도 끈질긴 모습을 보여 예능프로의 재미를 선사하며 시청률 3.0%를 기록하는 관심을 보였다. 시타자로 등번호 70이 적힌 모교 야구부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탤런트 이덕화(연영70) 동문의 모습까지 더해져 동문들에게는 재미 이상의 모교 야구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배우 강석우 동문 야구부육성기금 기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77학번 강석우 동문은 9월21일 모교를 방문해 야구부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강 동문은 "얼마 전 방송된 JTBC '최강야 구'에서 모교 야구부가 8대0으로 완승하는 경기를 보면서 대학 시절 추억과 함께 전율을 느껴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야구부가 좋은 성적을 꾸준히 거둘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말했다.

강 동문은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 MBC 방송연예 대상 라디오 부분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 재 TV조선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다시 사는 이야기 기사회생' 진행을 맡고 있다.



대구 대관음사와 경주 감포의 세계 명상센터 세운 주인공 - 무일 우학 스님

"모교는 세계적 석학, 총동창회는 친목과 교류 활성"

경북 경주시 감포읍 회곡길 연대산 골짜기에 있는 BUD('Budist University 대관해' 약칭) 세계명상센터는 독특한 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명상센터 초입에는 아름다운 환영대관음상이 찾는 이를 맞이하고, 산위로 가는 성불관 건물에는 커다란 사색하는 모습의 금불상이 있고, 좀더 위로 올라가면 길이 55m, 높이 약 8m의 와불상이 찾는 이를 압도한다. 멀리 산밑에는 약 10층 석탑쯤 되는 탑이 건물위에 우뚝 솟아있고, 무일선원 무문관에는 부처님 고행상이 자리잡고 있다. 가장 위쪽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시야 앞으로 눈시린 동해바다가 훤히 펼쳐져있다. 뷰가 뛰어난데다, 독특한 불교적 분위기가 풍겨 저절로 영성 감흥에 젖게 한다.

무일 우학 스님은 명상센터를 찾은 취재진을 친히 이곳 저곳을 안내했다. 대나무 숲이 우거진 사색로를 걷는데 대나무의 굵기가 코끼리 다리만큼이나 굵고 키는 10m를 넘어보였다. 우학 스님은 거제도에서 대나무를 옮겨왔다고 소개하고, "대나무 숲이 청정하고 영성을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사색로 주변에는 온갖 꽃나무와 유실수가 있는데 "농약을 치지 않으니 열매들이 신통찮다.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따먹도록 기르고 있다"고 했다

스님과의 인터뷰는 10만평이 넘는 명상센터 곳곳을 걸으며 진행됐다. 사무실에서 차 한잔 나누며 갖는 인터 뷰가 아니라 사색로를 걸으며 갖는 인터뷰라서 신선감 을 주었다. 토굴 공사와 법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말이면 모두 완성된다고 했다.

- 스님은 모교 불교대 선학과 84학번이시지요? 그에 앞 서 한의학과 79학번으로도 입학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한의학과에 다닐 때는 출가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고뇌끝에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북 지역 명문 경주고를 졸업하고, 79년 당시 의예과 못지않은 우수학생이 입학하는 모교 한의학과에 진학했다. 그런데 30대의 삼촌이 갑자기 사망한 일이 생겼다. 삼촌이 몸살이 나서 영양제를한 대 맞겠다고 시내 나가서 링거 약을 사오라고 그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스님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 약국에서 주사약을 사와 마침 알고지내는 이웃의 군종병(軍宗兵)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했는데, 주사를 맞던 삼촌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쇼크사하고 말았다. 그 충격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없었다.

"군종병이 주사액을 과잉 투약한 것이 사인이 아닌가 했지만, 내가 주사약을 사왔으니 심적으로 엄청난 충격 을 받았지요. 무너지는 후회와 죄책감과 함께 생과 사에 대한 번민이 뒤따르더군요.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어디 로 갈까, 영혼의 정처는 어디일까, 이런 문제에 직면하 면서 결국 출가하게 되었지요."

- 그렇더라도 누구나 선망하는 한의학과를 버리고 선학 과에 입학하면서 후회되지는 않았나요.

"영혼의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근원을 추구하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낌없이 한의학 과를 자퇴하고 출가했어요. 무일선원의 무문관에서 1000일간 면벽수행을 했습니다. 스파르타식 면벽수행 이었지요."

- 재학 시절의 추억들을 되새긴다면?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군부정권 퇴진 시위가 한창이 던 때였습니다. 80년대 중반, 온통 전두환 군부정권 퇴 진 시위가 대학사회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학생지도 부는 아니었지만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더군요. 사 회적 존재로서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 법회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 고려 대의대 학생회와 홍익대 불교학생회 등과 연계해 수련 회 등 불교활동을 벌였다.

스님은 대학 졸업후 이같은 불교정신으로 1992년 대구 남구 중앙대로에 대관음사를 차렸다. '무덤에서 요람까지' 라는 말 그대로 불교대학까지 갖춘 큰 규모다. 생활 속으로 들어가 포교활동을 벌인 결과 수많은 불자들을 확보했다.

그는 일상 속 불교의 힘을 중시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세상이 변하면 종교도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소통론을 갖고 있다. 즉 현실 생활에 맞는 맞춤형설법이 중생을 끌어모으는 동력이 된다고 믿는다. 스님이 추구하는 불교적 가치는 선관쌍수(禪觀雙修)다. 선과관의 수행법이다. 걷거나 눕거나간에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며 "너는 뭐냐"의 화두를 탐구하는 방식이다. 좌우명이기도 한 '견성성불 제도중생'의 포교정신이 그 바탕이다. 견성성불은 지혜이고, 제도중생은 자비를 말한다.

스님의 법문은 유명하다. 현대에 맞는 생활법문을 유 튜브로 알리고 있다. 유튜브 독자는 수십만명이다. 한시 간짜리 법문을 위해 20시간의 시간을 들인다고 했다. 소 통과 공감능력을 살리는 법문을 위해 불경은 물론 동서 현철들의 어록들을 두루 섭렵한다.

- 오늘날의 종교가 소멸의 과정을 가고 있다는데 그 이

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는 첨단화되어가고 있는데 종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보다 스님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논리적 합리적 대중적 공감 능력이 가는 법문을 개발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고리타분한 설법은 감동을 주지 못하지요."

스님은 감포 명상센터에 와불을 크게 세운 의미도 강 조한다.

"와불은 세계 평화, 나라의 평화, 가정의 평화 그리고 나의 평화를 간구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깨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 현정부에서도 북한과 대결주의 로 가고, 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런 부분 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구 경북은 보수적인 곳인데 이런 발언이 괜찮냐" 고 묻자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는 평화라는 답변이 거 듭 돌아왔다. 은해사 법타 스님이 북한에 국수공 장을 차릴 때 참여했노라고도 했다. 평화와 배려와 헌신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읽 힌다.

–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요즘 모교의 평판도가 높습니다. 작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 순위에서 9위를 했더군 요. 대학시절 김용정 교수가 1969년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 몇 년 지체된 것을 말씀하실 때 안타까웠습니다. 을지로 6가의 메디칼센 터를 300억원에 매입할 수 있었는데 매입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로스쿨을 가져오지 못한 것도 애석한 일이고요. 이젠 기회를 놓쳐선 안됩니다. 그리고 세계적 석학을 모셔와야 합니다. 학생들이 입학 할 때는 서울대 연고대에 비해 뒤쳐진다고 해도 졸업할

- 총동창회에 바라신 점은 어떤 것입니까.

"친목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부회장 제도를 확 장해 재정을 확충하십시오. 석림회 등 모교 출신 스님들 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 바랍 니다."

때는 이들을 능가한다는 실력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님은 몇해 전 중국 칭따오 대관음사 분원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칭따오 주재 동창회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2,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계홍 (국문65, 총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건쉽배틀' 스포츠·전쟁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기업 조이시티 대표이사 - 조성원 동문

해외 수출 비중 높여가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 집중

주식회사 조이시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온라인·모바일게임 개발과 공급을 하는 회사다. 온라인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히트작을 내놓으면서 200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 회사 대표이사 조성원(53, 경제학과 92학번) 동문을 만났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분당 퍼스트타워 빌딩 10층 조이시티 사무실에 들어서자 우선 드넓은 회사 공간이 시선을 끈다. 일반 회사와 달리 커다란 농구선수 캐릭터가 먼저 찾는 이를 맞이한다. 게임 캐릭터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젊은이를 상대로 한 회사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가벼운 캐주얼 복장 차림의 조성원 대표는 통념적인 회사 대표로 보이지 않는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같이 옷차림이 간 편하고 수수하고 가볍다. 우선 조이시티에 대한 질문부 터 시작했다.

- 조이시티는 어떤 회사입니까.

"피씨, 콘솔,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콘텐츠 기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영화사에 비유하자면 종합 영화 제작사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인공이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아니라 작가들이만든 캐릭터들이 인터넷 상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것이 다르죠. 조이시티는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전쟁시뮬레이션 게임 '건쉽배틀' 그리고 디즈니사와 협력해서 개발한 '캐리비안의 해적'등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올드한 사람들에겐 생소한 회사라는 느낌이 들어 좀 더 상세한 소개를 요청했다. 요약하면, 조이시티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과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자체 개발한 전쟁 시뮬레이션, RPG, 보드 게임, 캐주얼 등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과 프리스타일 IP를 활용한 온라인게임, 콘솔 게임 등을 서비스하며 전세계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인기를 얻고 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공장 투자 비용 등 막대한 자금력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이윤이 한자릿수의 이익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게임 개발은 전문가 집단의두뇌를 이용한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공장 건설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기술 집약이 중요한회사로서 그만큼 이윤이 크다.

- 회사 창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우 재무부서에 근무했다가 IMF 시대를 거쳐 벤처 기업 전성시대가 열렸죠. 테헤란 벨리 등 벤처 창업으로 인한 코스닥 붐이 일던 때입니다. 인터넷 비중이 커지고, 닷컴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미래 산업 중 하나로 온라인 게임 산업도 태동하기 시작했죠 이 부분이 미래의 성장산업이 되고 미래 먹거리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몸담고 있던 벤처 투자 회사를 떠나 엔도어 즈를 맡아서 전문 경영인(대표이사)으로 출발했다. 36 세때의 일이다. 그 이후 엔도어즈는 성장을 거듭해 2010년 한국 최고의 게임 기업 넥슨에 피인수되며 성공적인 M&A를 하게 된다. 그후 엔드림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조이시티를 인수하며 새로운 제2의 성장 신화

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은 게임 회사뿐 아니라 웹툰, 벤처캐피탈, 블록체인 기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 다.

- 기업 경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러자 자금 사정이 안좋아 고생할 때가 가장 힘들었 던 때라고 떠올렸다.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데 자본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좋은 멤버들 과 결속을 다지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멤버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미래를 보고 함께 가자고 호소했고, 그런 믿음으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갔죠."

그가 좌우명으로 삼는 용어는 '불성무물(不誠無物)' 이다.

"성실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뜻 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조 대표의 남다른 성실성은 아 버지를 본받았다. 몇해 전 작고하신 아버지는 행정직 고 위 공직자 출신. 조 대표는 엄하지만 성실한 아버지 교 육을 받고 자랐다고 했다.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무뚝뚝하시지만 끈기와 성실한 품성을 지니셨습니다. 아버지는 때로 힘들어하는 저를 보시고 '세상은 자기가 의도한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언가를 꼭 하려면 3배의 노력을 기울여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절망적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조이시티를 경영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끈기와 성실성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 컨텐츠 게임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었다고 자부했다.

- 모교 재학시절의 일들을 추억해본다면?

"저는 군대에 갔다가 대입을 준비해 모교 경제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군대에서 대입 준비를 했으니 철이 든 다음에 공부를 한 셈이죠. 절박하고 치열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학시절 단과대 수석을 계속하면서 졸업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외부 장학금으로 신라교역(회장 박준형 모교 동문) 장학금이었습니다. 재학시절에는 박준형 회장님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 배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도 후배들을 위해 과거의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올해 초에 상아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후배들에게 장학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모교 후배들을 데려오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후배들이 대개는 회사에 들어가 안주를 합니다. 월급쟁이로서 과장, 부장, 상무, 전무의 코스를 밟겠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타 대학 출신들을 보면 창업에 적극 나서고, 또 창업회사에서 실력을 발휘합니다. 후배들 도 적극적으로 모험심을 길렀으면 합니다."

그는 7학기 만에 조기 졸업했다. 재학 시절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독서도 많이 했다. 그 중에는 도올 김용옥 철학서를 많이 읽었다. 김용옥 철학자의 책이 서점에 나오는데 다 읽기도 전에 또 다른 책이 나

적이 지점에 다오는데 다 읽기도 전에 또 다른 적이 다 와서 그의 왕성한 집필력과 건강한 사유체계를 높이 산 다고 했다.

조 동문은 국내와 중국 시장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시장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전체 매출의 70%를 해외 수출로 만들고 있는데 좀 더 큰 규모의 매출과 위상의 게 임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다. 이미 세계시장 선두권에 우뚝 선 K팝과 한국 영화처럼 게임 산업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장에 랜드마크 같은 대표 기 업을 일구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아내 석미진(51)씨 사이에 3남을 두고 있다.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이계홍 (국문65, 총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朝계법인 **台智苑**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이 상 윤 (경영학과 91入)



0607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정화빌딩 2층 Tel. 02-418-0207, 0208 | Fax. 02-418-7133 | E-mail. sangyolee@naver.com www.sangjeewon.co.kr

한국불교태고종

관음기도 영험도량 해 운 사



주지 탄해 성율

(사)부패방지국민운동범불교총연합 | 전국중앙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48 (귀덕리) Tel. 064-796-4948 | Fax. 064-796-3829 | E-mail. 1202kds@hanmail.net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辯護士/辯理士

吳 洙 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5, 옥토빌딩 3층 (용인등기소 앞)

Tel. 031

031) 321-4066

Eav

031) 321-4062

Mobile. 010-5373-9599

E-mail.

yonginlaw@naver.com





대자기업주식회사

ISO 9001 인증

(토공, 비계, 철근·콘, 상·하수도, 금속창호, 포장)

대표이사

조 석 규

(토목 68入)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신세계-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이사 겸직



박주형(회계78) 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이사가 신세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박 신임 대표는 신세계와 신세계센트럴시티 대 표를 겸직하게 된다.

모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신세계그룹 인사과에 입사해 1991년 신세계그룹 경영기획실 경영관리 과장으로 이동한 후 2004년까지 약 13년 간 경영지원 업무에 집중되어 일했다.

2006년에는 신세계 백화점 부문 지원본부장으

로 이동해 2011년 이마트 부문 전략경영본부장 부사장으로 경영지원 업무에 집중했다.

이후 2013년 다시 그룹 지원본부장으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며 2016 년 말 그룹 임원 인사를 통해 센트럴시티 대표로 발령 났다.

임 명

충청남도 신임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경행75) 동문 이 충청남도 자치경찰 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신임 위원장은 당진 출신으로, 1983

년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간부후 보 31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1999년 총 경 승진 이후에는 대전 둔산 · 서부 · 동 부경찰서장, 충남 홍성 · 천안동남경찰서 장. 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 · 정보과 장 · 생활안전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신임 국립제주박물관장



박진우(고고미술사 학85) 국립중앙박물 관 유물관리부장(58) 이 국립제주박물관장 에 선임됐다.

신임 박 관장은 국

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국 립춘천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등을 거 쳐 2019~2021년 국립공주박물관장을 역임했다.

국립춘천박물관장 선임



이재열(고고미술사 학86) 국립제주박물 관장이 국립춘천박물 관장에 선임됐다.

이 박물관장은 1993년 국립청주박

물관을 시작으로 국립전주박물관, 국립 중앙박물관 고고부 등을 거쳐 2006년 학 예연구관으로 승진했다.

국립춘천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에 서 학예연구실장과 국립경주박물관 학예 연구과장 등을 거쳤다.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청북도 소방본부장이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에 임명됐다.

모교에서 공안행정 학 석사 학위를 취득

한 권 동문은 제8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해 서울 서초, 강동, 종로소방서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예방과 장, 소방청 예방총괄과장, 충청북도 소방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초대 관장



김항술(행대원04) 동 문이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초대 관장에 임명됐다.

김 관장은 (주)원창 대표이사, 학교법인

충렬학원(벽성대학) 재단이사를 역임했 고 제20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문 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호남·제주권 위 원장을 지내며 지역사회와의 높은 연대 감과 더불어 박물관 운영에 어울리는 리 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KT위즈와 3년 연장 재계약



이강철(회계85) 감독 은 KT 위즈와 3년 연 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감독은 KT와 3번 째 재계약에 합의하면 서, 오는 2026년까지

마법사 군단의 지휘봉을 잡으며 팀을 이 끌게 됐다.

KT 구단은 이강철 감독에 대해 "2019 시즌 처음 KT 지휘봉을 잡은 뒤 선수들 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원 팀(One team)' 문화를 정착시키며 하위권에 머 물던 팀을 단기간에 강팀으로 성장시켰 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졸업한 뒤 1989년 해태 타이 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현 역으로 뛴 16년간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잠수함 투수로 명성을 떨쳤다.

2005년 은퇴한 뒤 KIA 타이거즈의 2 군 투수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KIA 1군 투수코치와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수석 코치를 지냈으 권혁민(행대원96) 충 며, 2017년에는 두산 베어스의 2군 감독 으로 유망주들을 양성했다. 2018시즌에 는 두산 베어스의 수석코치를 맡아 팀의 정규시즌 및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했 다. 그리고 2018년 10월 KT 위즈의 제3 대 감독으로 부임했다.

치안정감 승진 인천경찰청장 내정



김희중(경행85) 경찰청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인천경찰청장에 내정됐다.

1993년 경찰간부후보 41기로 입직한 김 내정자 는 이후 강원경찰청 경무계장, 여성청소년과장, 홍 천경찰서장, 강원경찰청 형사과장, 동해경찰서장, 춘천경찰서장, 강원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 다. 2019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해 경북청 1부장,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지냈다.

2022년 6월에는 치안감 승진과 함께 경찰청 국

가수사본부 형사국장으로 전보됐고 같은해 12월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 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지난 2021년 출범한 강원도 자치경찰위 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 상

김삿갓문학상 본상



김금용(국문74) 시인 이 제26회 김삿갓문 화제에서 김삿갓문학 상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물의 시간 이 온다'는 다양한 공

간의 편력과 함께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 아시스처럼 생명력을 발견해 가는 기운 을 건네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받았다.

김 시인은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해 펜번역문학상(2008년), 동국문학상 (2013년), 산림문학상(2018년), 손곡문 학상(2019년) 등을 수상했다.

환경대상 교육부총리상



윤승규(사회87) 모교 법대 특임교수가 환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 인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총 ■ 리상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국내 최초로 동국대 법무대 학원에 행정법무전공 석사과정 개설을 주도했고 환경분야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강의와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을 이 끌었다.

전 시

故 이형숙 화가 특별 추모전



故 이형숙(미술74) 화가를 기리는 특별 추모전이 10월10일 ~ 15일 양재천변 갤러리 루하에서 열렸다.

이 동문이 2017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창고에 묵혀있 던 고인의 작품을 동생 이지향(국교80) 동문이 6년만에 기일에 맞춰 세상 밖으 로 끄집어 냈다.

이지향 동문은 "이번 추모전은 전시와 동시에 기부를 목적으로 기획했다"며 "작품들이 귀한 곳에서 귀하게 대접받았 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故 이형숙 화가는 졸업후 5년 간의 대 만 유학을 통해 동양적 세계관과 예술적 기교를 갖춘 뒤 귀국해 전시를 이어가다 안타깝게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작가는 생전 틀에 얽매이지 않는 화법 과 재료의 사용을 통해 동서양의 경계를 허문 작품 세계를 펼친다는 평을 받았다. 붓과 크레파스만으로도 농담을 질감있게 표현하는 등 자신만의 화풍을 성취해 냈

한편, 故 이형숙 화가의 부모님과 동생 등 가족 모두 모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총경 전보 인사발령 (2023. 7. 31)

▲인천 계양경찰서장 = 김난영(경행82)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구자 면(경행84) ▲전남 진도경찰서장 = 박미영(경행84) ▲경기남부 시흥경찰서장 = 김 신조(경행85)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 임실기(경행85) ▲세종경찰청 수사 과장 = 황석헌(경행85) ▲울산경찰청 교통과장 = 김선섭(경행87) ▲전남 화순경찰 서장 = 박 웅(경행87)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강은석(경행88) ▲경기 북부경찰청 교통과장 = 김평일(경행88) ▲제주 동부경찰서장 = 박현규(경행88) ▲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송혜영(경행88)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과장 = 김태 형(경행89) ▲경북 예천경찰서장 = 권용웅(경행90) ▲경북 문경경찰서장 = 김정란 (경행90)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 김찬수(경행93)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 김현수(경행93)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인사정보관리단) = 이창열(경행94) ▲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장 = 지지환(경행94)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 전귀 성(경행98)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 김기범(행정91) ▲대전경찰청 수사과 장 = 이상엽(법학85) ▲전북 남원경찰서장 = 김철수(행대원) ▲경기남부 부천소사 경찰서장 = 최복락(행대원)

이사람

뮤지컬 〈싯다르타〉 제작자 김면수 동문

김면수(행정79) 동문이 제작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작가 강정민(산공89) 동문이 최근 〈한겨레 서울&〉에 보도해 그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 주)



17년 차 은행원이 뮤지컬 제작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 었다. 호기심이 생겼다. 예 술계 인물 중에 은행원 출신 은 흔치 않은데, 어떻게 그 는 변신에 성공했을까?

김 대표의 어릴 적 꿈은 의 외로 정치인이었다. "정치 인 꿈을 포기한 게 은행 퇴

직하면서죠." 성인이 돼서도 정치인을 꿈꿨다니 그가 좀 특이해 보였다. 그는 1979년 동국대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1학년 때 그는 불교 관련 수업을 들었고, 2학년까지 불교학과 학생이 주로 기숙하는 '기원학사'에서 생활했다. 기원학사 아침 예불에 그가 매일 참석하며 부처님의 삶에 대해 알게 됐다.

대학 졸업 뒤 공군 장교로 복무했다. 행시 도전이 힘들어지자 1986년 전국적 조직이 있는 ¬은행에 입사했다. 정치인이 되는 경로를 수정한 것이다. 그는 은행에서 성과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지자체장 그리고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영업실적이 좋았던 김 대표는 2001년 비교적 이른 나이로 ¬은행 양재물류센터 출장소 소장이 됐다. 다음 해는 변두리 지점의 지점장이 됐다. 실적이 좋은 지점이 아니었는데, 그가 지점장이 되고 2년 만에 지점은 전국 1등 성과를 올렸다.

그때 부산의 호텔 대표를 만날 일이 있었다. 호텔은 운 영자금 10억원이 필요했다. 호텔 대표는 다른 곳에서 대 출받으며 김 대표에게 지급보증을 부탁했다. 그가 대출 보증을 서준 호텔은 2003년 태풍 매미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결국 그가 10억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했다.

당시 금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그의 지점에도 감사가들어왔다. 결론은 '문제없음' 이었지만, 이후 재감사가진행되자 2004년 그는 퇴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2008년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의 총감독으로 일하는 선배가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자신이 만드는 뮤지컬 〈 미스 피가로〉의 마케팅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공연 마케팅을 하면서 점차 공연예술에 대해 알게 됐다.

그런데 그를 공연계로 끌어들인 총감독이 외국으로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선배의 빈자리를 그가 메워야 할 지 아니면 그도 함께 일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됐다. 꿈 이 컸던 그로서는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공연계를 떠 나는 게 용납되지 않았다.

제작자가 된 그는 〈한국방송〉(KBS) 애니메이션 〈후 토스〉를 뮤지컬로 만들었다. 뮤지컬 〈후토스〉로 전국 순 회공연을 다녔는데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김 대표는 전세계에서 케이(K)-뮤지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찾았다. 마침 예수의 삶을 담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생각났다. 세계 3 대 성인 중 한 명인 '싯다르타'의 생애를 담은 뮤지컬을 잘 만든다면 전세계를 상대로 공연하는 케이-뮤지컬이 탄생할 거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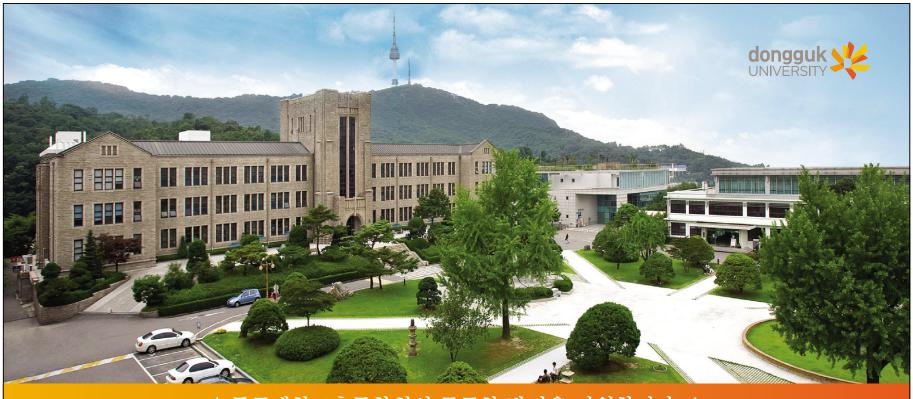
2019년 9월에 뮤지컬〈싯다르타〉를 초연했다. 그리고 다음 해 두 번째 공연을 하려는데 코로나19가 터졌

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뮤지컬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게 쉽지 않았다. 대형극장 뮤지컬 공연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해 김 대표는 선구매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 계좌에 100만원 씩 지금까지 총 600계좌를 팔아서 6억원을 모았다. 하 지만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다.

뮤지컬 〈싯다르타〉는 지난 8월 중순 강원도 속초에서 공연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김 대표가 상당한 수준의 뮤지컬 공연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스태프 등 안정적인 인력풀이 있어서 가능한 거 같다. "제일 고생하는 건 김미영 제작이사이고요. 뮤지컬은 종합예술이라 스태프 모두 다 중요해요. 어느 한 파트도 '빵구' 나면 안되죠."

인생 2막에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려는 사람에게 김 대표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무모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도전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자신의 재능을 팔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그에게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아내가 외국에 있어요. 같이 살면 뮤지컬 제작은 절대 못 했겠죠. 내가 사고를 하도 쳐서 그런지 아이들은 착하게 컸어요. 다행이죠."

정치인이 되려 했던 김 대표는 이제 〈싯다르타〉를 위해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뛰고 있다. "어쩌면 제가 동국대 기원학사에 들어간 거나, ㄱ은행을 그만둔 거나 다〈싯다르타〉를 만들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싶어요." 브로드웨이에 케이-뮤지컬 전용관을 갖고 싶다는 김면수 대표의 도전을 응원하고 싶다.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계속의 <mark>새로운 백년</mark>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mark>명문사학</mark>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비 등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동창회비 납부시 성명·입학년도·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만원)

동창회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3년 7월 1일 ~ 10월 31일까지 접수분

금액·성명 가나다 순

<mark>탈북학생지원</mark> 장 학 금 1,000만원



문선배 (경영) 동국대 총동창회장



전순표 (농학) 세스코 회장



영안스님 (승가) 문수사 주지



전은영 (화학) 한진안경 대표



조완제 (건축공학) LH 서울도심권사업단장



최수경 (한의) 한의사



김일윤 (대학원) 신경주대학교 총장



김진문 (경영) 신성약품 대표이사



라동영 (불교) 동국 4.19혁명동지회 회장



배시영 (경제) 前 북미주총동창회 회장



백경남 (정치) 동국대 명예교수



보광스님 (불교) 청계산 정토사 회주



서영준 (법학) 동양 회장



송석구 (철학) 前 동국대 총장



심경모 (영어영문) 前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윤재웅 (국어국문) 동국대 총장



이상윤 (정치) 삼영기업 회장



이화일 (상학) (재)성옥문화재단 이사장



자광스님 (인도철학)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조은구 (경제) 동양에스텍 회장



한우삼 (농학) 태양금속공업 회장



곽순석 (환경조경) 삼주이엔씨 대표이사



구윤관 (회계) 삼원아트무역 대표이사



권준명 (임학)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김미행 (영어영문) 여자동창회 사무총장



김석만 (사회과학대학원) SH신한 회장



김영근 (경영대학원) 동국대 경주병원 파트장



김정남 (행정) DB보험그룹 그룹장(부회장)



김철환 (행정대학원) 선영화학 대표이사



민홍기 (경영) 유엔아이 대표이사



박영순 (산업대학원) 한일친선협회 부회장



박용기 (한의) WISE캠퍼스 한의학과 교수



박태선 (농학)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동범 (법학) 한화솔루션 컴플라이언스실장



서승훈 (정치외교) 데오테크 대표이사



선일스님 (인도철학) 법명사(부루나포교원) 회주



손기범 (영어영문) 동부허병원 상임고문



손진걸 (국사) 교학사 대표이사



이범주 (식품공학) 케미랜드 대표이사



이상민 (행정대학원) 前 국회의원 (10대,12대)



이상봉 (산업공학) 상봉요양병원 대표이사



이상진 (경영대학원) 대풍그린농원 대표



이재창 (경영) 태양트레이 대표이사



이종극 (경영) 우원팜 대표



이충주 (체육교육) 제이서브코리아 대표이사



이호중 (행정) 대한LPG협회 회장



이홍섭 (회계) 제일기획 상근감사



임금동 (경영) 한세상사 대표이사



정증식 (공업경영) 성우정공 회장



조완제 (건축공학) LH 서울도심권사업단장



진성기 (행정대학원) 삼정산업 회장

여러분의 후원금은 35만 총동창회의 발전기금입니다 후원금은 1년에 한번 … 소중한 정성을 모아주세요.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사무처 전화 02-733-03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및 일반회원 후원금

• 고문 100만원 이상

• 지도위원 30만원

10만원

• 부회장 10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82 60 48

• 일반회원 3만원



차준은 (경영) EUNSUNG MEXICANA 회장

부회장

송인모 (경찰행정) 장동락 (정치외교)

평생회원 50만원

김휘국 (행정대학원) 목민수 (교육대학원) 박옥정 (행정대학원) 석진원 (산업시스템공학)

지도위원 30만원

구자근 (법학) 권기종 (불교) 김성식 (농림경제) 김수창 김종서 (법학) 김형태 (불교) (상학) 배충남 (경제) 변학환 (영어영문) 서영수 (행정대학원) 신정철 (경영) (정치외교) 인병창 (상학) 오만식 (언론정보대학원) 윤청광 (영어영문) 이능희 (상학) 이주삼 (정치) 이채옥 (정치) 전진표 (임학) (화학) 정재기 (정치외교) 정환민 (농학) 종상스님 (행정대학원) 주호영 (불교대학원) 지성호 (법학) 한상인 (도시공학) 한영휘 (경제)

상임이사 20만원

구태회 (행정대학원) 김동빈 (행정) 김병권 (세무회계) 김석희 (법학) 김성훈 (법학)



최진식 (무역) 심팩 회장

김양훈 (법학) 김영화 (행정) 김용표 (불교)

류경수 (법학) 류수완 (건축공학) 박병은 (영어영문) 박성기 (국어국문 박재용 (국어국문) 박종구 (조경) 방재홍 (경영대학원) 배영훈 (법학) 백길웅 (인도철학)

송재룡 (행정) 신관호 (경제) 신유철 (무역) 안대영 (무역) 안명근 (농학) 안정상 (화학공학) 오학선 (행정대학원) 우병용 (사회과학대학원) 유여진 (미술) 윤두옥 (생물) 이기엽 (국민윤리) 이상칠 (사회)

이춘필 (불교대학원) 임수현 (사회) 임채영 (연극영화) 대시장 (근구(장치) 전정수 (불교대학원) 정수헌 (대학원) 정하성 (상학) 조용국 (불교대학원) 조항민 (화학) 조현철 (화학공학) 지산스님 (교육대학원) 최태일 (회계) 표종섭 (고고미술사학)

한대현 (경제) 한범식 (행정) 한승호 (환경조경) 화랑스님 (승가)

이사 10만원

강대훈 (행정) 강성노 (정치외교) 강성노 (정치외교) 강희석 (호텔경영)



하홍열 (경영)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고상영 곽노성 (전자공학) 구학모 (행정대학원) 김경호 김기수 (전자공학) 김기수 (국어국문) 김도연 (문화예술대학원) 김동관 (정치외교) 김동준 (경영) 김두식 (선학) 김상구 (경영) 김숙희 (물리)

김영석 (법학) 김영종 (경제) 김용성 (교육) 김익배 (무역) 김재수 (행정대학원) 김종한 (사학) 김창희 (무역) 김태용 (행정대 (행정대학원) 김현진 (대학원) 김홍의 (사회)

임용의 (지외) 남궁철 (회계) 도하석 (국어국문) 동훈스님 (불교대학원) 박대은 (사회과학대학원) 박동석 (임학) 박민배 (임학) 박봉례 (회계) 박봉준 (경제) 박상기 (무역) 박재구 (식품공학) 박홍식 (회계)

대용대 (외제)에 배보영 (불교대학원) 백경선 (불교) 백용운 (수학교육) 사기순 (국어국문) 손근익 (건축공학) (건축공학) (연극영화) 송경옥 송철호 (체육교육) 등 글 오 (세국교육) 성 위(송명숙) (서양화) 신승철 (행정대학원) 신유진 (법학) 신화섭 (화학) 안재근 (경영)

(건축공학) 예수해 (영어영문) 오원배 (미술) 우근식 (경영대학원) 우병용 (사회과학대학원) 유병돈 (공업경영) 육문균 (경제) 윤천수 (정치외교)



홍경식 (행정) (사)한국퇴직연금개발원 원장

(사회과학대학원) (경영) (전자계산) 이경림 이경배 이권학 인도철학) (경영) (회계) 이기학 이길호 이동철 임학 이병노 이상구 (경찰행정) (인도철학) (행정) (전기공학) 이상훈 이석원 이수호 (농학) 이승복 (경찰행정) 이양구(법연) (불교) 이영길 (행정대학원)

이원욱 (경제) 이윤영 (토목공학) 이인배 (경영대학원) 이장기 이종찬 이판우 (경제) (공업경영) (법무대학원) 이허호 임병수 이헌호 (공업경영) (불교문화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임성순 장송수 전찬길 (회계) 정장호 정일주 정지환 문화예술대학원) (불교대학원) (체육교육) 조성일 (경제) 조시승 최영록 문화예술대학원) 최종윤 최창영 (경영대학원) (법학) 추교춘 (사회과학대학원) 하한기 (건축공학)

13

(사회과학대학원) (토목공학) 하해준 한상묵 함혜현 (경찰행정) 허남태 혜인스님 (불교대학원) 황윤철 (정보산업)

연회비 3만원

건봉사 주지 (강원 고성) 관음사 주지 (경남 진주) 노만사 주지 (전남 신안) 덕운사 주지 (대전 동구) 문수사 주지 (부산 남구)



황남진 (경제) IBK기업은행 지점장

법주사 주지 (경북 군위) 벽송사 주지 (경남 함양) 보광암 주지 (경북 경주) 봉선사 주지 불락사 주지 (전남 석련사 주지 (충남 구례) 10 · 홍성) · 거창) 성불사 추지 (경남 시방사 주지 신원사 주지 (충남 공주) 연화사 주지 (서울 동대문) 영화사 주지 (부산 영도) 정토사 추지 (경남 중암사 주지 (대전 중구) 지장사 주지 (대구 수성) 해인사 주지 (경남 합천) 호국지장사 주지(서울 강경구 (산업기술대학원) 강동훈 (언론정보대학원) 5 강두찬 (체육교육) 강민지 (경영대학원) 강정희 (응용생물) (불교) 강희중 고영섭 (사회과학대학원) 권오범 (사학) 권준태 (경영) (식품공학) (중어중문) 권충호 김경심 (불교)

김기록

김기철 김낙현

김동식

김동완 김동원 김동준 김명수

김복회

김시현 김영삼

김용태

김윤회

김인호

김종배

김중대

김태우

김호성 김홍의 류 정

김택남 (경영)

문송국 (회계)

(법학)

(정치)

(경영)

(임학)

(사회)

(화학공학)

(수학교육)

(화학)

(경영)

(사회)

(식품공학)

(행정대학원) (영어영문) (체육교육) (연극영화) 10 (산업공학)

이동우 (법학) 이상백 (체육교육) (행정대학원) (경제) 이상용 (건축공학) 이성규 (행정대학원) 이승희 (행정) (경영대학원) 이연석 (경찰행정) 이영보 (법학) 이영보 (법학) 이용국 (경영) 이인원 (무역) 10 (경제) 이재욱 (법학) 이정수 (화학공학) 무이스님 (사회복지)



• 이사

황범순 (행정)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문승덕 (행정대학원) 박기륭 (불교대학원) 박상남 (회계) 이정수 (영어영문) 이종규 (경영) 이종연 (농업경제) 이좌범 (사학) (전자공학) 5 박성일 (언론정보대학원) 박윤태 (상학) 박재정 (통계) 이중량 (정치) 이찬희 (사회교육) 이창섭 이창섭 박종구 이창진 (불교) 이춘재 (경영) 박준승 (임학) 박창규 (법학) 임낙정 장 윤 박태준 (의학) (상학) 혁 (물리) 박 훈 박흥진 (경영대학원) (국어국문) 장진혁 (정치외교) 장한맘 (국어국문) 전동표 (불교대학원) 배기환 (경영) 배주환 (전기공학) 전병구 (영어영문) 전은영 (화학) 백기완 (정치외교) 백동산 (경찰행정) 서상록 (행정) 정갑동 (영어영문) 정은선 (전자계산) (상학) 정충래 (국어교육) 손상필 (경제) 송수연 (불교대학원) 송용섭 (정치외교) 송원전 (무역) 정태수 (해정대학원) 조선주 (해정대학원) 조신명 (회계) 조한운 (상학) 주노식 (국사교육) 신영철 (언론정보대학원) 진창훈 (상학) 최승원 (대학원) 최창순 (상학) 탁영온 (공업경영 신원상 (영어영문) 신종국 (식품공학) 안병소 (치외교) 엄충식 (식품공학) (공업경영 오세찬 (화학) 하승호 (건축공학) 허관식 (행정) 오혜성 (문화예술대학원) 원봉스님 (불교문화대학원) 월공스님 (불교) 경영대학원 미확인 동문 (12명) 유범영 (산업공학) 유영근 (경영대학원) 윤병건 (경영대학원) 윤완수 (불교) 윤재민 (사학) 윤종준 (국사) 이규나 (법무대학원)

발전기금

동명사 월 2 누적: 232

장학위원

산업공학과 (회장 김상직) 30 김신영 (호텔컨벤션경영) 10

학부/대학원 입회비

서울캠퍼스

학부 (697명) 일반대학원 (270명) 영상대학원 (154명) 540



영신상사 대표

WISE캠퍼스 학부 (320명/55%) 352 50 일반대학원 (25명) 불교문화대학원 (41명) 82 사회과학대학원 (32명) 경영대학원 (18명) 골프대회 협찬금(품)

협찬금

100 돈관스님 (영어영문) 100 _____ (845년 송석환 (농림경제) 신영태 (무역) 300 100 전순표 (농학) 100 전화성 (컴퓨터공학) 1,000 황경환 (교육대학원) 100 황문섭 (경영) 100

협찬품

문선배 총동창회장 - 54인치 TV (1대) - 마샬 액톤 스피커 (1대) 정증식 부회장 골프공 (2세트)명함지갑 (3개) 이범주 식품공학과 회장 - 마스크팩 (130세트) - 화장품 (10세트) 김문선 부회장 - 30만원 상품권 (1매) 전진선 양평군수 - 명품쌀 4kg (130개) 오준호 이사 -__ . 거리측정기 (5개) 최윤용 한의과동창회

- 경옥고 (10세트) 홍종표 행정대학원 회장 골프티셔츠 (130벌) 박용기 WISE캠퍼스 한의학과 교수 · 경옥고 (3세트)

SAMSUNG B2B STAR PARTNER 삼원아트 주식회사

고객 만족이 실현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운 일터

개인의 창의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

삼성전자 30년 파트너, 삼원아트(주)는 고객 감동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삼성전자 프린터 잉크 토너 용지 관련 문의 02-521-8857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11호 20210426~20220414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대표부동산신탁





토지 개발에서 관리·처분·담보·컨설팅까지 오직 고객의 가치만을 생각합니다.

무궁화 신탁은 수탁받은 부동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고객님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드립니다.